
보안 위협 동향

2016년 결산 2017년 전망

2016 REVIEWS &
2017 PREDICTIONS

AhnLab

A man in a dark suit and blue tie is shown from the chest up, holding a white tablet. The background is a deep blue with numerous white, three-dimensional letters and symbols floating around him, creating a sense of digital data or information. The overall aesthetic is professional and tech-oriented.

CONTENTS

2016년 결산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2017년 전망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보안 위협 동향
2016년 결산
2017년 전망

2016 REVIEWS &
2017 PREDICTIONS

2016년 결산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01	전세계를 뒤흔든 랜섬웨어의 진화	4
02	가성비 높은 표적 공격, 경계가 없다	5
03	IoT 악성코드의 선제공격	6
04	익스플로잇킷의 적자생존, 치열한 취약점 공격	7
05	모바일 환경에 뿌리내린 루팅 앱	8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전세계를 뒤흔든 랜섬웨어의 진화

2016년 한해 보안 업계뿐만 아니라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지겨울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한 보안 용어는 바로 ‘랜섬웨어(Ransomware)’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랜섬웨어는 지난 한해 동안 종류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안랩에 접수된 비율만 보더라도 연초에는 전체 보안 침해 신고의 15%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1월 말에는 4배 가량 증가해 60% 이상을 차지했다.

2016년 랜섬웨어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변화와 소멸을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5년 악명을 떨쳤던 테슬라크립트(TeslaCrypt)가 지난해 5월, 돌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또 국내에서 피해가 컸던 크립트XXX(CryptXXX)도 2016년 7월 이후 잠잠해졌다. 반면 스팸 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록키(Locky)나 음성으로 감염 사실을 알려주는 케르베르(CERBER)는 지

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다. 또 파일뿐만 아니라 MBR(Master Boot Record)까지 암호화해 PC 사용 자체를 방해하는 랜섬웨어도 등장했다. 올해는 랜섬웨어 제작과 유포를 대행해주는 랜섬웨어 서비스, 이른바 RaaS(Ransomware-as-a-Service)가 본격화되면서 랜섬웨어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지만, 국내 감염율이 높았던 테슬라크립트나 크립트XXX, 록키, 케르베르 등은 영어 외에도 각국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포 및 감염 방식 또한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부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멀버타이징(Malvertising), 최근에는 사회공학기법과 결합하거나 RDP(Remote Desktop Protocol)를 이용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가성비 높은 표적 공격, 경계가 없다



특정한 대상을 선별하여 공격하는 표적 공격(target attack)은 투자 대비 성공률이 높다는 특징때문에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적 공격은 정치적인 목적과 금전적 목적의 일반 기업을 노린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6년 2월 미국 국토안보부 인사정보 탈취 사건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고, 지난 8월 실수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해킹 톨(Shadow Brokers) 또한 국가간 스파이 전과 연관성이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공격도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주로 홍콩, 미얀마, 시리아, UAE,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서 집권당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 등을 노린 표적 공격이 발생했다.

일반 기업을 노리는 표적 공격의 단골 메뉴는 고객정보, 즉 개인정보다. 올해도 국내는 물론 야후, 드롭박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른바 비즈니스 이메일 스캠(Business email scam)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이메일 변조 사기도 유럽과 북미 지역의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성행 중이다. FBI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이메일 변조 피해 사례는 미국에서만 총 7,000건, 피해액은 약 740만 달러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모 기업의 이메일 해킹에 의한 무역대금 240억 원 피해 사례의 경우, 사우디 국영 정유업체인 사우디아람코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IoT 악성코드의 선제공격



사물인터넷, 이른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협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는 사용성과 저전력의 측면에서 경량화된 임베디드 리눅스(Embedded Linux)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사용자 단말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를 관리하기 쉽지 않고, 특히 제조업체가 영세할 경우 보안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격자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2016년 9월, 유명 보안 블로그인 크랩스온시큐리티(KrebsOnSecurity)와 호스팅 업체 OVH에 대해 기록적인 규모의 DDoS 공격이 발생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미국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업체 دين(Dyn)에 대한 DDoS 공격도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트위터(Twitter),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에어비앤비(Airbnb), 페이팔(PayPal), 넷플릭스(Netflix),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등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들 두 공격에는 사물인터넷 악성코드인 미라이(Mirai) 악성코드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가 공격에 이용되었으며, 일부 악성코드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만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관련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익스플로잇킷의 적자생존, 치열한 취약점 공격

익스플로잇킷(Exploit Kit, 이하 EK)은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툴로, 랜섬웨어 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스플로잇킷의 치열한 경쟁과 지각 변동이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랜섬웨어 유포 순위 1위로 악명을 떨쳤던 앵글러(Angler EK)와 뉴클리어(Nuclear EK)가 활발히 활동하다 갑자기 사라졌고, 앵글러의 자리를 물려받았던 뉴트리노(Neutrino EK) 역시 하반기들어 활동이 감소했다. 반면 선다운(Sundown EK), 매그니튜드(Magnitude) 등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스플로잇킷의 다단계 리다이렉션(Redirection) 기법은 웹사이트 광고 서버를 이용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멀버타이징(Malvertising) 공격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스크립트 형식의

다운로더나 익스플로잇킷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윈도우 셸 프로그램인 파워셸(Powershell)을 이용한 악성코드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익스플로잇킷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IE), 플래시(Flash), 자바(Java) 등의 취약점을 비롯해 다양한 취약점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문서 파일과 관련된 EPS(Encapsulated PostScript) 취약점과 오픈타입 폰트(Open Type Font)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증가했다. 또, 윈도우(Windows) 운영체제의 정상 기능의 설계상 결함을 이용한 코드 인젝션(injection) 기법의 아톰바밍(AtomBombing)은 모든 버전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2016년을 집어삼킨 보안 위협 Top 5

모바일 환경에 뿌리내린 루팅 앱



2016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루팅(Rooting)하는 악성 앱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안랩이 수집한 루팅 악성 앱의 수는 2016년 상반기 6개월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주로 루팅을 통해 광고 행위 또는 사용자 몰래 앱을 설치하는 악성 앱 유형이 주를 이뤘고, 하반기에 들어서며 금융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루팅 앱도 나타났다. 중국에서 제작된 악성 앱들은 대부분 추가적인 앱 설치 또는 광고 노출을 통한 수익을 위해 루트 권한 획득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루팅을 시도하는 악성 앱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권한을 획득한다. 상반기에 발견된 악성 앱 갓리스(Godless)는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5.1 버전(Lollipop) 이하에서 루트 권한 탈취를 위해 다수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앱이 증가함에 따라 구글은 안드로이드 보안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스테이지 프라이트(Stage fright)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 매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업데이트 대응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공개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7.0 버전(Nougat)은 루팅을 통해 시스템 변조를 시도할 경우 부팅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 제조사 또는 단말기의 생산 연도에 따라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전망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01	랜섬웨어, “돈” 모이는 곳 정조준하나	10
02	대중화된 공격 툴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고도화·가속화	11
03	고도화된 위장술로 내부 침입 및 시스템 장악 시도	12
04	멈추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공격·사이버 테러	13
05	Internet of Things vs. Threat of Things	14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15~19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랜섬웨어, “돈” 모이는 곳 정조준하나



2016년 한 해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랜섬웨어(Ransomware)는 공격자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용한 범죄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중단이나 고객 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결국 몸값(ransom)을 지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랜섬웨어 제작 및 유포의 서비스화(Ransomware as a Service, RaaS) 등 랜섬웨어 자체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랜섬웨어의 위협은 올해 더욱 고도화되고 공격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라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지사. 지금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 범죄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과 파밍이 주도했지만 이제 랜섬웨어가 그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스피어피싱 등과 결합한 랜섬웨어의 경우, 기업 간 무역 거래 대금을 노린 범죄 조직이 다년간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대중화된 공격 툴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고도화·가속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공격은 전문적인 IT 지식을 가진 해커 또는 해킹 그룹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암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상에서도 랜섬웨어 제작 서비스인 RaaS를 비롯해 다양한 스팸 메일 발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전문적인 IT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악성코드를 제작하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대중화된 사이버 공격이 더 많은 범죄에 악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사이버 범죄자를 특정인 또는 그룹으로 한정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및 수사 등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격자들은 스팸 메일 첨부파일과 홈페이지 방문 시 자동으로 설치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Drive-by-download) 공격을 지속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악용하는 익스플로잇 킷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 공격 기법의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익스플로잇 킷 기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웹사이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웹쉘을 이용한 공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고도화된 위장술로 내부 침입 및 시스템 장악 시도

2010년 전후로 발생한 기업 해킹은 기업 기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 내부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격으로 변화했다. 이를 위해 특히 올해는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인프라에 성공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더한 공격 기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감염된 시스템을 거점으로 기업 내부 인프라에 침입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 및 검색함으로써 시스템 계정 정보를 획득한다. 주요 계정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반복함으로써 내부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탈취하고 마침내 전체 인프라를 장악한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내부 시스템 장악을 장악하면 이를 공격 거점으로 삼아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광범위한 다수의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감염된 PC와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다른 시스템을 통해 또 다른 기업의 내부 시스템 장악까지 시도할 수 있어 이 영역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멈추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공격·사이버 테러

2017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이해 관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가간 이념적 갈등 또한 깊어져 타국의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역시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공격의 대상(target)은 기존의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겨냥하던 것에서 서비스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과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공격 등 사이버 테러의 배후는 주로 테러 단체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추정된다. 공격 동기 또한 금전적 이득보다는 종교적·이념적·정치적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공격이 성공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종교적·정치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공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 내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분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인터넷망에 연결된 시스템이 존재하거나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연결하는 지점이 존재할 경우 보안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또 불편함을 이유로 보안 정책을 어기는 내부 직원이 있을 수 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을 휩쓸 보안 위협 Top 5

Internet of Things vs. Threat of Things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 사물인터넷의 보안 이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안에 취약한 제품의 판매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노린 사물인터넷 악성코드 또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해 미국에서는 미라이(Mirai)라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대규모 DDoS 공격이 발생한 바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는 한번 판매 또는 설치되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수년간 초기 상태 그대로 사용된다. 특징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기기 제작 업체는 보안 문제를 고민할 정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사용성의 측면에서 저전력과 저비용이 핵심인 사물인터넷 기기의 특성상 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 추가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와 관련된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보안 업체와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국가에서 앞다퉀 사물인터넷 기술과 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사물인터넷 기기에 의한 광범위한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어렵다. 각국의 정부와 관련 협회, 제조사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체계 구축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 강화 조치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2017년 주목해야 할 보안 트렌드

사이버 암시장에는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서비스가 자리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 이 생태계는 경제 원칙에 따라 더욱 다양한 악성코드를 생산해낼 것이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영역 확장에 나설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상호 경쟁의 시장 논리에 따라 차별화된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서비스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이로써 올해 보안 위협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기관의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보안 이슈나 필요에 따라 도입했던 보안 솔루션들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 업체는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최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머신러닝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Trend 1. 보안 영역의 중심에 등장한 머신러닝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연구 속에서 등장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보안 영역에서도 새롭게 자리잡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보안 솔루션이 도입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에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의 지식으로 축적된 것을 기술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간 인력 기반으로 해결하려던 보안의 영역을 기술 기반으로 대체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보안 체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간과되었던 부분에서 새롭게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머신러닝 등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석가 못지 않은 결과물을 산출할 것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 절감된 리소스는 새로운 분야 또는 비즈니스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Trend 2.

보안 영역의 세분화와 통합된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요구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IT 변화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따른 세분화된 보안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마련한 기업들은 각 산업분야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안이라는 요소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술과 솔루션을 선택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각각 세분화되어 있는 보안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보안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위협 정보의 시각화가 필수적이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보안의 주요한 항목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Trend 3. 공격 도구의 대중화, ‘악인’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공격은 전문적인 IT 지식을 가진 해커 또는 해킹 그룹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암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상에서도 스팸 메일 발송 서비스를 비롯해 랜섬웨어 제작 서비스인 RaaS(Ransomware as a Service) 등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전문적인 IT 지식이 없는 사람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요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익스플로잇킷(Exploit Kit)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공격 기법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더 많은 범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대행 서비스로 인한 사이버 공격의 대중화로 인해 공격자를 더이상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으로 한정 지을 수 없게 됐다. 즉, 사이버 공격 대응은 물론 공격 주체에 대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안 패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기업 및 기관의 경우, 임직원들의 보안 패치 적용을 강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나 솔루션 도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제언

결론: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의 대부분은 조직 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수행하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타깃 공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격 기법 또한 특정인 또는 그룹에게만 이메일을 보내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나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워터링 홀(Watering Hole) 공격 등이 주를 이룬다.

일련의 최신 해킹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표적 공격도 결국 “악성코드” 유입에서 출발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PC나 서버가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전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가이다. 솔루션 도입만으로 충분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보안 관리자나 책임자뿐만 아니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사용자의 보안 인식으로 인해 보안 침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다. 2017년에는 각 솔루션과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점검 및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변함 없는 보안의 취약점인 ‘사람’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 내 일반 사용자부터 보안 관리자, 기업 책임자까지, 사람에 의한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보안 위협 동향
2016년 결산
2017년 전망

2016 REVIEWS &
2017 PREDICTIONS

발행처 주식회사 안랩
집 필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 • ASEC대응팀
편 집 안랩 콘텐츠기획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 T. 031-722-8000 | F. 031-722-8901

© 2017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본 간행물의 어떤 부분도 안랩의 서면 동의 없이 복제, 복사, 검색 시스템으로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없습니다.

안랩, 안랩 로고는 안랩의 등록상표입니다.

그 외 다른 제품 또는 회사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AhnLab.com **B** ASEC Blog **F** 보안정보 Facebook

AhnLab

보안 위협 동향
2016년 결산
2017년 전망

2016 REVIEWS &
2017 PREDICTIONS
